

精 神 保 健

大韓家族協會 姜 駿 相

第 3 節 兒童精神保健

1. 精神薄弱의 兒童

精神薄弱의 兒童은 世界的인 統計를 보면 같은 年齡의 兒童의 約 3~5%에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約 20名 乃至 30名에 1名의 比率로 精神薄弱兒가 있다는 推算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假想的인 比率로 보면 現在 우리나라에도 約 50~70 萬名의 精神薄弱兒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醫學은 아직도 너무나 身體的인 面에만 기울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精神薄弱도 腦의 障礙에 그 原因이 있으니 身體의 病이기도 하다. 그러나 腦라고 하면 굳은 頭蓋骨 안에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로 마치 人間의 身體가 아닌 듯한 錯覺들을 일으키고 있다.

옛부터 精神이라고 하면 物質과는 全然 關係가 없는 一種 特別한 存在로 생각하고 醫學의 關心外에 놓여 왔다. 따라서 아직도 腦의 疾患만은 農村은 勿論 서울의 中心地까지도

무당 점장이가 取扱하고 있는 境涯가 한 두 번이 아니다.

甚至於是 傳道師들이 迷信打破에 奔走 하다보니 精神分裂症患者를 잡아놓고 魔鬼의 所行이라 기도를 드려야 한다니 失望도 한두 번이 아니다. 元來 腦의 疾患에 關한 研究란 至極히 難한 것이고 特히 個體發生 早期의 醫學의 未發達도 있어 精神薄弱이라고 하면 醫學의 으로는 거의 放置狀態에 있는 듯 하다.

特히 最近 各 先進國家에서는 精神薄弱問題를 社會的 또는 醫學的으로 重大視하고 그 豫防治療, 保護指導 및 教育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問題가 今後 醫學關係者들에게 如何히 取扱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기 爲해서 는 第一 먼저 精神薄弱의 概念에 對한 正確한 知識을 갖출 必要가 있다고 生覺한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精神薄弱이란 知能의 發達이 第一 눈에 띄우기는 하지만 그 外에도 感情이나 意志方面에도 障礙가

있는 精神全體의 缺陷狀態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 缺陷은 胚種期, 胎生期 및 小兒期에 어떠한 障害을 입어 發端되는 各種의 原因에 起因하는 疾患의 集團을 呼稱하는 것이다. 卽 精神薄弱이란 한 疾患이 아니라 前述한 各 段階의 缺陷狀態를 綜合한 總括概念이다. 또한 精神薄弱이란 狀態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腦의 故障을 일으킬 여러 가지 原因이 作用하여도 어떤 것은 그 經過中에 治癒되고 어떤 것은 生命을 빼앗아가고 그런가 하면 死亡하지도 않고 治癒되지도 않고 어느 程度의 缺陷을 남기고 끝어버리고 만다.

이때에 表現되는 것이 精神薄弱 狀態라고 할 수 있다. 精神薄弱이란 普通 낫지를 못한다고 하지만 事實은 이것은 逆說인 것이고 낫지 않을 것이 아니라 나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狀態를 精神薄弱이라고 하는 것이다. 實際는 精神薄弱이 될 것을 그렇게 안된 精神薄弱의 수는 몇 배가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보면 現在의 醫學도 精神薄弱을 多數 未然防止를 하고 있는 것이다. 但只 낫지 않을 數가 그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醫學關係者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精神薄弱의 原因을 究明하여야 한다는 일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어느 病에서도 그러하였지만 既往에 特別히 細心한

注意를 하여야 할 것이다. 從來 精神薄弱의 原因이라면 곧 遺傳을 들고 그 以外の 原因을 檢討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大體로 遺傳에만 原因을 追求하는 동안은 그 病에 對한 醫學은 發達을 못하고 만다. 過去에 있어 癩病이나 結核은 勿論이요 精神病도 그러하였던 것이다.

左右間 그 原因에 있어 母親의 말이 반드시 그 病의 眞性原因이 된다고는 믿을 수 없으나 原因을 深究하는 데 重要한 손잡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母體의 症狀와 胎兒가 받은 損傷이 平行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風疹과 같은 母體에서 別로 뚜렷한 症狀이 없는 데도 胎兒의 腦에는 重篤한 損傷을 일으킨다는 報告도 있다.

其外에도 누구나 걸리는 가장 平凡한 病도 胎兒에는 큰 影響을 끼치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 妊娠中의 母體의 狀況과 新生兒의 教育의 狀況과를 恒時 細心한 注意로 比較 檢討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 附近에 豫防할 問題들이 숨어 있다고 볼 하고 있다. 日常使用하는 藥物이나 物理療法 放射線照射等이 胚種이나 胎兒에게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恒常念頭에 들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問題들은 今後의 研究의 對象들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일

들을 一般에게 잘 가르칠 必要도 있는 것이다. 出産時나 出産後에 對하여 新生兒의 精神의發育에 充分히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아이의 身體的 疾患에 對하여는 醫師나 家族들이 注意하고 있으니 -- 一旦 精神의 發育이 健康하면 放置狀態인 것이 一般的인 風潮인 듯하다. 精神薄弱이 되기 前에 좀 더 힘을 들여 치료함으로써 事前防 止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指導要領

助産員이나 保健員들이 精神薄弱 兒의 家族들에게 여러가지 相談을 받을 때 어떻게 指導하여야 하는가 ?

1) 初期症狀를 等附히 말 것.

出産時의 狀況 特別히 出産의 難 易, 假死狀態의 有無, 身體 特別히 頭部의 畸形의 有無, 四肢의 運動의 不全, 母乳吸引力, 原因不明의 發熱等 異常이 있으면 곧 醫師의 診療를 받도록 할 必要가 있다.

慰勞하는 데만 힘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發育을 促進시키도록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精神薄弱이란 診斷을 내리는 것은 兩親들에게 큰 쇼크를 주게 되는 일 이니까 말하는 方法에도 充分히 注意를 하여야 하고 또한 時期를 選擇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治療의 時期를 놓쳐서는 더욱 안된다.

2) 治療의 目標를 높은데 두고

단숨에 正常한 兒童이 되도록 하자고 하면 途中에 絶望感에 사로 잡혀 放任하게 되는 수도 있으니 손 쉬운 일부러 하나하나 끈기있게 指導하도록 하여야 家族들도 勇氣가 나게 된다.

3) 精神薄弱은 但只 知能의 發育 問題뿐 아니라 情緒의 發達, 其他 臟器의 作用에도 關係가 있다는 것을 認識시켜 指導에 있어 無理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精神薄弱이란 狀態는 있어도 아직도 健康한 機能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發育시키도록 努力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떠한 精神薄弱兒라 할 지라도 살고져 하는, 좋아지려는 生命력이 있는 법이니 그 힘과 調和되도록 도와주면 뜻하지 않은 좋은 成果를 보는 수가 있다.

6) 精神薄弱이란 핸디캡이 다른 핸디캡을 造成하지 않도록 할 것.

예를 들면 知能發育이 늦다고 하여 다른 어린아이와 놀 수도 없고 父母兄弟가 憐憫하다고 다리고 다니지도 않고 學校에도 못 다닌다. 이렇게 되면 元來 늦은 데다 더욱 機會까지 놓쳐버리는 環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家庭이나 社會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들은 極力 努力하자.

6. 過保護와 過訓練을 삼가하자.

불쌍한 나머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母親이 代身하여 준다던가 또는 그 反對로 조금이라도 더 發育시킬 一念으로 無理한 要求를 하는 수가 많은데 어린 아이의 能力에 充分히 調和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어린이의 精神保健을 考慮할 것.

知能發育이 늦다던가 其他의 機能障得로 어린이가 얼마나 日常生活에서 困難을 느끼고 苦悶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理解하여 어른의 立場에서 無心코 無理한 일을 시킨다던가 바보 取扱을 하여서는 안된다. 어린이는 이러한 일들에 곧 反應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늘 느끼고 있는 고통 언젠가는 反抗의 態度인 亂暴한 行爲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精神薄弱者의 反社會的 行爲는 精神薄弱 本來의 症狀가 아니라 周圍의 사람들의 그릇된 態度의 決算인 것이다.

8) 精神薄弱이라도 社會生活이 무엇인가를 發見하여 주자.

世上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으로 運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사람들에 依하여 움직이고 있다. 精神薄弱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일을 하기 爲하여 한쪽으로는 어린이를 訓練하고 社會는

이러한 어린이에게 適當한 일들을 準備하여야 한다.

以上 精神薄弱兒의 對策에 對하여 表面的인 것을 말하였거니와 要컨대 醫療關係者들은 精神薄弱에 對한 올바른 概念을 가지고 問題의 重要性에 비취 豫防에 積極努力하자 않으면 안된다. 이미 精神薄弱이된 患者에 對하여도 從來와 같이 醫療의 範圍外에 두지 말고 그들을 治療善處하기에 努力을 傾注하여야 하겠고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恒常最善의 助言者가 되어주기 바랄 뿐이다.

3. 片親의 어린이

이 境遇는 精神薄弱의 어린이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問題의 兒童들이다. 前者는 어린이 自體의 問題가 있는데 後者는 兩親側에 그 原因이 있다. 對策으로는 前者에 더 困難한 要因이 많으나 後者도 現實面에서는 여러가지 複雜한 要素를 품고 있다. 어린이는 元來 兩親의 솔하에서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 片親으로는 어디엔가 無理가 있게되는 것이다.

1) 부친이 없는 어린이

먼저 片親이 어머니인 境遇를 檢討하여 보던 嬰幼兒期에 있어 어린이는 어머니란 있으면 자라는 데에 큰 支障은 없다. 그러나 父親이 없다는 것은 어머니 自身에 큰 影響이 있다.

經濟的인 問題는 제쳐놓고라도

어머니에게는 恒時 滿足되지 않은 氣分이므로 그 氣分이 代償的으로 어린이에의 過度의 愛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結果 어린이는 神經質의인 過保護의 養育을 받게되어 一般的 愛撫를 받는 것이 언제나 女性的이고 父親의 역센 男性的인 接觸을 받지 못하므로 역시 性行도 女性으로 되기가 쉽다.

多少 成長하였을 때 父親의 男性的인 指導를 받지 못하여 性格的으로 決斷心이 不足하므로 親友들의 忠告에 흐르게 되어 問題兒가 될 可能性이 많다. 또한 父親이 없으므로 經濟的인 影響이 있는 境遇는 母子는 日常生活에 恒常 두려움을 가져 정신적인 壓迫을 받게 된다.

어머니가 職業을 가지게 되면 접쳐서 어머니의 愛情도 充分히 받을 수 없게되고 다른 어린이의 家庭에 比하여 自己만이 片親이라는 것이 어린이에게 쓸쓸한 感을 주어 結局 어딘지 모르게 이 어린이의 性格에 어두움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成長하여 多少 일을 할 수 있는 年齡이 되면 父親의 經濟的인 役割의 一部를 代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關係로 悠悠하게 少年時節을 즐길 수도 없다.

表面으로 보면 一面 意志가 강한 어린이 같이 보이지만 一面性

格的으로 딱딱한 어린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女子로서는 性이 다른 父親이 없다는 것은 다른 意味에서 쓸쓸함이 있어 後日 男性과의 交際에 있어 不安과 지나친 依存 等の 性格을 나타낼 可能性이 있다.

父親이 없다는 것은 一生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經濟上 其他의 理由로 繼父를 맞아들여야 한다면 親戚, 保育院의 손에 맡겨지면 問題는 더 複雜하게 되어 어린이의 負擔은 加一層 크게 되는 것이다.

2) 母親이 없는 어린이

片親이 父親의 境遇가 되는데 어린이가 乳幼兒期에는 어린이의 生命에 直接關係가 있다. 그러나 生命은 人工營養으로 維持할 수가 있다. 다만 어머니의 愛撫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어머니의 愛撫가 後日에 性格 形成에 重大한 影響을 끼친다는 것은 最近에 와서는 거의 眞理라고 믿게 되었다.

美國에서는 「어머니들은 어린이에게 돌아가라」는 運動에 熱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데 그 意味가 있는 것이다. 家庭의 따뜻한 이란 主로 어머니에 依하여 造成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直接的으로는 어린이에게 더 큰 影響을 미치게 된다.

父親은 經濟的으로 일을 하는

關係로 家庭內에 있는 時間이 적어 家庭은 空虛한 狀態가 되기 쉬운 것이다. 이런 때에 어린이는 다른 데서 家庭의 분위기를 얻으려 하는데 그 場所에 따라 非行의 出發點에 부딪치는 수가 많다.

父親이 片親인 境遇는 前者 以上으로 繼母 其他의 環境에서 자라게 되어 더 많은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같은 片親이라도 兩親의 一方이 死別한 것보다 生別한 것이 心理的으로는 더 複雜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어 어린이의 育成에는 惡影響이 있다고 한다.

結 論

以上과 같이 片親이란 狀態는 決코 좋은 條件은 아니다. 特히 靑少年의 非行과 缺損家庭이란 언제나 論議되고 있는 重大事이다. 그러면 이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두 말할 것 없이 子女를 위하여 兩親 共히 健康에 留意하여 長壽하여야 할 것이고 生離別에 對하여는 特히 結婚指導를 主로 하는 結婚相談所의 增設로 結婚當初에 正當하고 適合한 相對를 選擇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一旦 結婚하면 不滿이 있더라도 어린이를 爲하여 서로 참고 讓步한다는 가장 常識的인 일을 지키는 수 밖에 없다.

美國의 어린이의 4分之1, 日本의 어린이의 8分之1은 父母의 生離別로 이 悲境의 主人公이 되고 있다

니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片親이 된 境遇는 前述한 弊害를 可能的限 減少시키는 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繼父, 繼母로서 片親을 補充하는 境遇도 形式的인 父子, 母子에게 愛情을 義務的으로 強要하지 말고 이웃끼리 서로 親하게 되듯 時期를 기다릴 必要가 있다. 또한 其外의 境遇에도 좋은 親戚, 이웃, 友人 등은 片親으로 缺損되어 있는 狀態를 補充할 方法도 있는 것이다. 片親이란 狀態는 人間이 살아가는 過程의 여러가지 不利한 條件의 하나인 것이지 決코 全部는 아닌 것이다.

人間이란 여러가지 困難한 條件을 克服하여 살아나가는 힘찬 生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하나의 惡條件에 固着치 않는 것이 必要하다.

어린이의 非行도 簡單히 環境의 責任에 돌려버리므로 非行을 合理化하는 態度는 어린이나 周圍사람들도 삼가 할 일이며 人間の 生命력을 無視하는 일이기도 하다.

第4節 學童과 精神保健

1. 學校敎育과 精神保健의 役割

1928年 美國의 「윅크만」이란 精神保健의 學者가 國民學校나 中學校의 敎師가 精神保健에 대하여 어느 程度의 理解를 하고 있는가 하여 調

찰을 한 일이 있다. 數萬名의 教師들에게 다음 例中 教師로서 生徒를 評價함에 있어 어느 아이를 第一問題의 兒童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 順位를 적도록 하였다.

- (1) 버릇이 나쁜 아이
- (2) 말 對答을 잘 하는 아이
- (3) 곧 우는 아이
- (4) 亂暴한 아이
- (5) 말이 없는 아이
- (6) 友人들과 놀지 않고 孤立되어 있는 아이 等等

그 結果 美國의 大多數의 教師들이 가장 不規則이며 危篤한 症勢라고 評價한 것은 教師에 對하여 規律을 지키지 않고 順從치 않는 아이였고 그 反面 教室에서는 한 마디도 말을 못하고 울기를 잘하는 情緒的 問題를 가진 아이는 輕하게 評價하였던 것이다.

이 結果를 보고 익크란 教授는 教師들이나 學校當局이 兒童自身의 情緒的 問題에 對하여 얼마나 理解가 없는가를 알고 精神保健의 必要性을 痛感하여 곧 大統領에게 進言하여 教師들을 育成하는 師範學校의 教育課程에 精神保健을 必須科目으로 하기를 決定시켰던 것이다.

教師가 學級을 運營하여 가는데는 亂暴하고 規則을 지키지 않는 兒童이 問題이지만 教師들에 對한 不安이나 恐怖로 말도 못하는 兒童이나 友人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兒童들이야 말로 純 教育的 面에서 보

면 더 重症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即 教育이라 함은 兒童의 人格을 育成하는데 그 目標이 있는 만큼 指導하고 있는 立場의 教師와 生徒間에 不安이 있어 말도 못하고 있거나 또한 友人들과 어울리는 社會生活 第一步의 機會도 없이 孤立되어 있다고 하면 登校하였다 하여도 何等의 人格的 成長을 이룩하지 못하는 結果가 될 것이니 말이다.

精神保健의 立場에서 보면 이러한 學童은 亂暴한 行動이나, 말 對答을 하는 것보다 더 根本的인 問題 即 精神生活의 出發點에 問題가 있는 만큼 教育者가 가장 注目하지 않으면 아니 될 學童들인 것이다.

學校教育이란 가르치는 立場의 先生과 指導를 받는 生徒들 間에 이루어지는 人間關係에 있다고 생각할 때 教師들에게 精神保健의 知識이 얼마나 必要한 것인가 하는 것은 再論의 餘地조차 없다.

第一 먼저 教育者는 自身의 理想에 맞는 學童型을 算出하여 그 型에 맞도록 強權을 發動하는 學童觀이나 教育評價를 버리고 個個人의 心術을 그 깊은 곳까지 理解하여 教師自身과 學童들 間의 마음의 連鎖를 明瞭化하지 않는 限 教育은 그 出發點조차 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의 連鎖가 어둡고 不健康하여 學童이 先生에 對하여 不安感

을 가지고 恐怖心이나 輕蔑感을 느낄 때 그 先生이 입으로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學童들은 너한層 無視할뿐 決코 率直하게 先生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教師 生徒間의 마음의 和合에 努力하는 것은 精神療法의 原理에서 發展하여온 精神保健의 根本主義인 것이다.

따라서 學校教育에 있어 最も 生徒들의 健康한 人格의 成長을 바라려는 이러한 教育理念을 實現시키는 길이란 第一 먼저 學校當局의 教師들이 自己自身の 精神保健에서 出發하여 學童의 精神保健의 增進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2. 學校教育의 精神保健 對策의 實際

모든 保健對策이 現在의 疾病 乃至 不健康을 早期에 發見하여 早期에 適切한 處理를 한다는 消極的 對策과 이러한 不健康을 豫防하자는 積極的 對策의 두 課業이 있듯이 學校의 精神保健도 現在 問題가 되어 있는 學童을 早期에 發見하여 指導하는 消極策과 一般의 學童의 精神健康을 增進하여야 한다는 積極的 對策이 있다.

1) 問題兒의 早期發見과 適切한 處理

學校에서 精神保健上 問題가 되는 學兒들이 ick 많다. 그러나 教師들이나 父母가 學兒를 보는 눈

이 非科學的이요 精神保健으로 評價할 것 같으면 重大한 마음의 問題를 等閑視하고 些少한 問題를 그릇 重大하게 過信하여 오히려 學兒들의 마음을 萎縮시키는 수가 많다.

學校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學習上의 不適應과 行動上의 不適應이 問題가 되는데 要는 學兒들에게 이러한 問題가 일어 났을 때 그 表面만을 보고 常識的인 解釋으로 處理하여서는 안된다.

兒童의 精神保健에서 學兒의 學習上의 問題나 性格 行動上의 問題의 科學的 理解方法이나 指導法을 말하였는데 그 知識으로 正確하게 學兒의 마음의 問題를 取扱하도록 教師들은 權威만을 主張하지 말고 問題解決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兒童의 諸問題는 母子間의 心理的 問題, 家族의 問題가 그 大部分인데 父母나 家族은 自身도 이 心理的 寫藤 속에서 生活하는 關係로 自身들도 學兒의 問題의 原因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故로 그것을 啓蒙하고 指導하는 것은 亦은 教師들이 아니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問題解決의 論議가 師 親會의 課題의 大部分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問題가 複雜하여 教師의

知識과 努力으로는 解明되지 않을 때 兒童相談所의 힘을 빌려 教師自身の 指導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說明하면 學習의 不振이라는 것은 父母도 教師도 學兒自身도 苦悶하는 問題의 하나이다.

父母는 成績이 나쁜 것이 兒童에게 學習意欲이 없어서라든가, 學校에서 가르치는 方法이 서툴러서라든가, 自己에게 有利하게 常識的 解釋을 하고는 부질없이 兒童에게 工夫를 強要하거나 學校教育法을 非難만 하고 있는 수가 많다.

그러나 學習不振의 原因을 더 들여 보면 가장 많은 예는 確實히 知能은 優秀한데 情緒的인 問題가 있는 까닭에 注意力이 散漫하고 向學心이 없어 成績이 不振한 學童이다. 그러나 그 中에는 元來 腦의 障礙가 있어서 知能의 發達이 늦고, 그로 인하여 學習이 不振한 境遇도 있다. 이러한 狀態를 精神薄弱이라고 하는데 知能테스트로 70以下の 知能指數(IQ)인 境遇이다.

이들을 爲하여서는 永登浦의 點心學園과 같은 施設을 擴張하여 特殊教育을 하는 것이 가장 時急하다. 이 問題는 精神衛生의 또 하나의 重大事이다.

以上은 學習 不能의 例였지만 다

음은 學童의 異常行爲인 「反抗」「嫉妬」「登校拒否」「夜尿」「夜驚」「癖」「偏食」等々の 精神身體 症狀에는 그 原因으로서 여러가지 問題가 潛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登校拒否는 學校에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달아나지 않을까 하는 病的 不安으로 拒否하는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는 學校에 가고 싶고, 또 가야 할 테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수 없게 되는 強迫神經症의 症狀인 때도 있는 것이다. 또 어떤 學童은 知能指數가 낮아, 學業에 興味が 없는 수도 있고 稀有的 例이지만 精神分裂症의 發病으로 妄想과 幻覺이 있어 登校 못하는 兒童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登校拒否라 하여도 그 原因이 여러가지인 만큼 그 取扱도 여러가지로 달라야 할 것이다.

科學的으로 正確하게 原因을 探求하여 指導하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精神保健에 忠實하다고 할 수 없다.

學兒들이 나타내는 行爲이나 비릇은 말하자면 症狀의 하나인 것이다.

이 症狀에 對하여 「나무라거나」 「說得하는」 따위의 對症療法을 하는 것은 非科學的이요 特히 毆打에 이르러서는 言語道斷이요 根源을 發見하여 根本的 治療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一般學童에 對한 精神保健 增

進法

마음의 健康 卽 情緒의 安全을 期하고져 하는 精神保健의 立場에서 보면 自律神經系나 內分泌腺系의 機能調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現代의 精神身體醫學에서 가르치듯이 自律神經이나 「홀몬」系는 感情生活와 密接한 關係가 있어서 自律神經이나 「홀몬」의 失調가 있으면 感情의 混亂이 있고, 反對로 心的「스트레스」가 強하게 透露되면 自律神經이나 腦下垂體나 副腎皮質「홀몬」系의 失調를 일으켜 高血壓, 胃病양 其他 各種의 身體의 不健康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人間의 몸과 마음을 分離하여 논할 수 없다는 것이 科學的으로 論證된 것이다.

마음의 安定과 積極性을 기르는 데 먼저 規律的인 生活, 끝 없는 身體의 鍛鍊으로써 自律神經系나 「홀몬」系의 調整을 하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므로 運動, 作業, 休養, 睡眠은 무엇보다도 重大한 精神保健의 問題이다.

最近 學校에서도 그러하거나와 特別히 家庭에 있어 兒童 學童의 身體의 鍛鍊에 等閑하고 「텔레비」나 「클럽」이다 等等으로 늦잠을 자므로 睡眠時間의 短縮 疲勞의 蓄積물이 있는 듯 한데 이러한 事實은 身體의 健康뿐 아니라 健康한 精神을 育成하는 데 큰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問題는 學童들 보나도 教

師나 父母들이 反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다음으로 必要的인 것은 心情의 安定은 身體의 健康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치는 마음의 關係 卽 人間關係가 左右한다. 따라서 學校에서도 이 點에 特別히 重點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教師와 學童, 學童相互間이 明朗하고 健全하게 結合되어야 한다. 이것은 結局 學校라는 人間集團의 社會的 問題가 되는 까닭에 「明朗한 學校를 이룩 합시다.」「모두 사이 좋게 지냅시다.」 등의 標語 運動이 되고 마는 수가 허다하다.

科學性을 尊重하는 精神保健의 立場에서 보면 이러한 標語 運動은 活動의 結果이지 活動 그 自體는 아닌 것이다.

健全한 人間關係를 維持하려면 우선 教師나 學童中에 精神障害者가 있으면 早期에 發見하여 隔離, 治療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精神不健康者가 있으면 반드시 全體의 人間關係에 禍이 가는 까닭이다.

特別히 教師中에 患者가 있는 境遇는 學童의 心理에 重篤한 影響이 있으므로 管理者는 細心한 注意를 하여야 한다.

人間을 教育하는 사람中에 精神障害者가 있다는 것은 會社員이나 事務 公務員이 會社나 工場에서 發病하였다는 것과는 比較가 안될 程度로 나쁜 影響이 있다는 것을 恒

時 銘記하여야 한다.

同時에 健康한 人間關係가 맺어 질터면 人的 組織이 合理的이고 組織의 目標가 明白하여 모든 사람들이 組織속에서 努力할 수 있고 勇氣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敎員의 組織, 學童會의 組織이 언제나 保健面에서 心理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 어떻게 될 데지의 習性인 「만배리즌」 便宜主義, 權威主義에 依한 人的組織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질이 되어 決코 精神의 健康을 培養할 基礎는 안된다.

이러한 면에서 恒時 心理를 考慮하여 學校가 어떤 때에 기쁨, 어떤 때에 苦悶의 根源이 되는 가를 잘 살피야 한다.

集團의 心理的 構成을 여간 配慮하지 않고선 敎育的으로 成功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4) 性敎育의 必要性

性敎育은 아직도 誤解된 甚 強壓乃至 無視하여 버리는 陋習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形便인 듯 하다.

初經을 惡性不治의 疾患으로 誤解하고 悲觀하거나 恐怖心으로 自殺未遂의 騷動까지 일으키는 例들을 생각할 때 男女의 性生理 敎育도 勿論 必要하리라 본다.

그러나 性敎育이란 生理的 敎育뿐은 決코 아니다. 男女間에 서로 尊敬하고 扶助하여 사랑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人間敎育인 것이다.

人間生活의 源泉地인 家庭, 그리

고 그 家庭의 中心이 되어야 할 男女(夫婦)之間의 사랑이 敎育 밖에 있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는 奇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살부터 7歲, 13歲부터 14歲의 精神保健의 重大한 課題인 것이다.

勿論 性敎育 問題는 學校뿐의 問題가 아니라, 오히려 家庭의 問題인데 父母들과 學校와 協力하여 子女敎育을 成功的으로 이룩하자는 P. T. A. (師親會)가 第一 먼저 論議하여야 할 問題인 것이다.

그것을 父母의 權力이나 金錢을 學童들의 배움의 마당에 動員하여 混亂을 일으킨 지난날의 어머니들의 無知와 虛榮과 손잡은 敎師들의 不正이 얼마나 學童들을 落心시켰던가 永遠히 잊어서는 안될 過誤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弊의 發見이었던 P. T. A. 가 그 存在價値를 法으로 잃어버린 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學童들의 情緒敎育은 그 發見이 없으니 絕望狀態이다.

再出發이 하루 바빠 오기를 빌며 이번에는 이러한 目標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이 워크는 본회 교육부 주최 양호교사 강습회에서 강의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편집부)

△ △ △